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14	12. 21	12. 25
대 표 기 도	이예준 형제	최종열 성도	이윤선 성도
성 경 봉 독	이예준 형제	최종열 형제	이윤선 성도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대강절 :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4. 달력 배부 - 2026년 달력을 한 부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이수현 집사 헌물)
5. 봉사자 모임 - 12일 오후 6시에 모입니다(금요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6.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공지원 자매, 김대철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11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2. Adven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14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마 2 : 7 - 12(신p2) (Matthäus 2:7-12)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배	이상호 목사
성찬식 Abendmahl	보혈을 지나, 막14:22~26	담임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 주돈혁 형제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행위의 온도를 측정하라!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펔전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1866년에 이 교회에 소속한 교인은 모두 4,36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에 속했습니다. 하루는 스펔전이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험악한 세계를 이기려면 주님과 관계가 뜨거워야 합니다. 이것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처럼 항상 자기부족을 인식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겠지?”하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앞에 있는 것을 놓고 “나는 부족하다. 더 뛰어야 해. 더 은혜를 받아야 해. 더 기도해야 해!”라고 안타까워하는 자세를 일생동안 유지한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교회 지도자나 이와 같은 발전과 개혁, 자기 수정과 부족을 느끼지 않고는 마음은 금방 식고 맙니다. 당신이 안고 있는 이런저런 시험 거리들이 실상은 영적으로 식어버린데서 생긴 부작용은 아닌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없다. / 故 옥한흠 목사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말씀의 인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지 나눠보세요.
2.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기쁨과 헌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